



쥬라기 공원의 과학
베사 사피로 지음

멸종된 매머드 복원 계획 추적

멸종 동물을 복원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가장 먼저 영화 '쥬라기 공원'이 떠오른다. 영화 속의 과학자들은 호박석 속에 들어 있는 모기에서 공룡의 DNA를 추출해 낸다. 그러나 이 DNA는 완벽한 게 아니다. 염기서열이 사라진 부분을 양서류의 DNA로 채워 넣자 공룡은 부활하지만 생식 계통에 문제가 생겨 쥬라기 공원에 재난이 닥친다.

그렇다면 멸종된 지 수천 년밖에 안 된, 아직은 사체 상태가 양호한 매머드라면 복원이 가능할까. 진화생물학자 베사 사피로가 펴낸 '쥬라기 공원의 과학'은 매머드를 복원하려는 계획을 추적한다. 과학자들은 환경을 되살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매머드를 부활시키고자 한다. 매머드와 같은 거대 동물이 북극의 스텝 토탄지대를 돌아다니며 풀을 밟고 뜯어먹는 과정에서 주변 환경이 살아난다는 것이다.

〈처음북스·1만6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학문잡식
나카하라 게이스케 지음

조감력·통찰력 키우는 인문학

나무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숲의 형태와 운곽을 한눈에 조망하는 조감력과 현상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이 요구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 조감력과 통찰력을 키우는 데 '학문잡식'이 요구된다고 주장하는 이가 있다. 자타가 공인하는 일본 최고 경제 애널리스트 나카하라 게이스케가 쓴 '학문잡식'은 다양한 분야의 독서와 폭넓은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저자는 자신의 전공 분야인 경제나 경영이 아닌 역사, 철학, 심리학, 종교 등 인문학 분야에서 해법을 찾는다. 사람과 사회, 세상에 대한 근원적 이해와 통찰이 얹어는 구체적인 소비 동향과 거시 경제, 나아가 세계의 거대한 흐름을 읽어낼 수 있다는 논리다.

또한 저자는 다 놓쳐도 '호기심'만은 놓치지 말라고 설명한다.

〈갈대상자·1만3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참혹한 전쟁에서 살아남은 여성들의 생생한 목소리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는다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 지음



"폭격은 밤에야 끝이 났어.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눈이 내렸지. 우리 병사들 주검 위로 하얗게... 많은 시인들이 팔을 위로 뻗고 있었어... 하늘을 향해... 행복이 뭐냐고 한번 물어봐주겠어? 행복... 그건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 기적처럼 산 사람을 발견하는 일이야..." (본문 중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여성과 어린이, 노인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다. 전쟁은 인간성을 파괴하는 가장 참혹한 무력 행위다.

올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벨라루스의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의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가 나왔다. 작품에는 전쟁에 참여하고 살아남은 여성 200여 명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겨 있다. 침묵을 강요당했던 여성들의 눈물과 절규로 완성된 작품은 전쟁

문학의 걸작으로 꼽힐 만큼 울림이 강렬하다.

알렉시예비치는 언론인 출신 작가다. 그녀는 최근 몇 년 전부터 유력한 노벨상 후보로 급부상했다. 세계의 의식 있는 지식인과 스웨덴의 한림원이 그의 문학 여정을 주목했다는 방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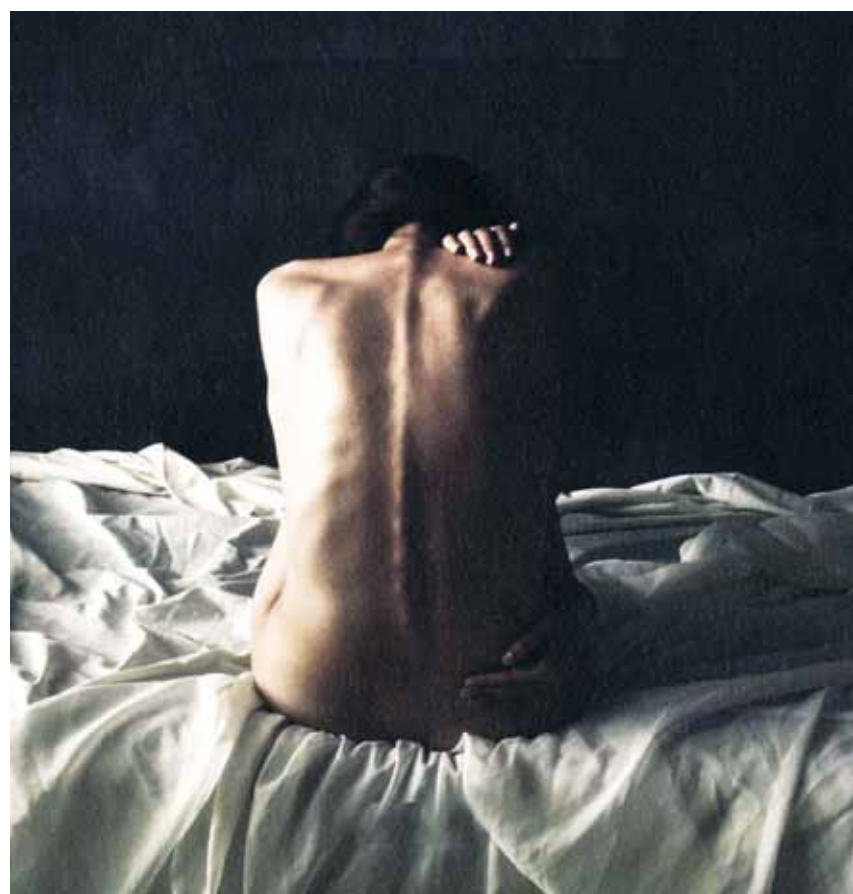
시인이거나 소설가가 아닌 신문기자 출신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녀만의 독특한 문학 장르, 이른바 '목소리 소설'로 불리는 작품을 썼다. '목소리 소설'은 수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한 결과물을 묶어낸 것으로, 독창적인 기법이 투영된 다큐멘터리 산문이다. 거기에는 생생한 현장성과 처절한 고민이 날것 그대로 담겨 있다.

알렉시예비치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분쟁을 필진하게 보여준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참가한 여성은 100만 명이 넘는다. 하지만 그들 중 어느 누구의 이름과 얼굴도 기억되지 못한다.

작가가 인터뷰한 200명의 여성들은 단지 여성일 뿐이었다. 그녀들은 송고한 이상이나 승리, 패배, 영웅 같은 따위를 말하지 않는다. 단지 가혹한 전쟁의 운명 앞에 내던져진 보통 사람들이었다. 울금이의 말처럼 "여인들은 전쟁에서도 여전히 절없는 소녀였고 예뻐보이고 싶은 아가씨였고, 자식 생각에 애간장이 타들어가는 엄마였다."

작가는 남자들이 하지 않은 전쟁 이야기를 여자들의 입을 빌려 말한다. 남자



올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알렉시예비치의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에는 전쟁에 참여하고 살아남은 여성 200여 명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겨 있다.

〈문학동네 제공〉

들은 승리와 전적을 이야기하지만 여자들은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 그녀들은 전쟁에서도 사람을 보고 일상을 느낀다. 처음 사람을 죽였을 때의 공포와 절망, 전쟁에서 생리현이 터져나오는 경

험, 전선에서 싹튼 사랑에 주목한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도 이들에겐 또 다른 전쟁이 기다린다. 그녀들은 전쟁에 관한 기록, 일대일 책이나 부상자에 대한 서류를 숨겨야 했고 편견과 싸워야

했다.

"이런 아침에 엄마가 나를 깨우더라고. '말야, 네 짐은 내가 싸겠다. 집에서 나가주렴... 제발 떠나... 너한테 아직 어린 여동생이 돌아나 있었잖아. 네 동생들을 누가 머느리로 데려가겠니? 네가 4년이나 전장에서 남자들이랑 있었던 걸 온 마을이 다 아는데...'"

여성들은 말한다. 전쟁의 추하고 냉혹한 얼굴, 성폭력 그리고 배고픔을, 그리고 여전히 드리워져 있는 아픔과 슬픔, 죽음의 그림자를 이야기한다.

그들은 전쟁이 끝나고도 붉은색을 볼 수 없어 꽃집 앞을 지나지 못하는 여인, 전장에서 열아홉 살에 머리가 백발이 된 소녀, 첫 생리가 있던 날 총에 맞아 불구가 된 소녀 등 저마다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여인들이다.

여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다 보면 전쟁 속에서도 따뜻한 피가 흐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모두 다 귀한 인생이다. 평범하고 순박한 우리의 여동생과 언니, 누나와 엄마다. 작가가 주목하는 것은 전쟁과 여성은 하나의 카테고리에 묶을 수 없다는 진실이다.

"여자는 생명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생명을 선물하는 존재. 여자는 오랫동안 자신 안에 생명을 품고, 또 생명을 낳아 기른다. 나는 여자에게는 죽는 것보다 생명을 죽이는 일이 훨씬 더 가혹한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문학동네·1만6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저임금근로자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라



피케티의 새 자본론
토마 피케티 지음

지난해 '21세기 자본'으로 피케티 신드롬을 일으켰던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신간이 출간되었다.

'21세기 자본'에서 피케티는 경제적 불평등은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역사적 분석,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자산에 누진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파격적 대안을 제

시했었다.

이번에 나온 '피케티의 새 자본론'은 보다 현실세계에 밀착해 현대자본주의가 국제정치 및 사회제도와 맺는 관계와 문제점을 밝히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명쾌하게 제시한다. 이 책은 지난 2004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저자가 프랑스 저명 저서지 '리베라시옹'에 연재했던 칼럼을 묶어낸 경제에세이다.

책은 어렵고 딱딱한 이론으로 무장한 글이 아니라 현장감이 드러나도록 엮어 썼다는 데 특징이 있다. 피케티의 문제의식과 메시지가 단순명쾌하게 설명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읽을 수 있을 만큼 흥미롭게 기술되어 있다. 피케티가 가장 힘주어 개혁을 주장하

는 부분은 조세제도다. 상속세율을 1세기 이전 수준으로 올리고 저임금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근로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견인하려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점이 있다. 과연 성장만 회복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가? 심화된 양극화와 그로 인해 훼손된 민주주의는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상속세와 증여세는 완화하고 재정을 매우기 위해 지방세와 자동차세 등은 증세하는 추세다. 이 같은 '부자 감세 서민 증세'는 피케티에 따르면 불평등을 가속화하는 세제일 것이다. 〈글항아리·2만2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레고·피규어·RC... 장난감이 지닌 매력



어른을 위한 첫 번째 장난감
황재호 지음

레고를 조립하고, 피규어를 모으고, RC가 개조에 많은 돈을 들이는 어른들을 향한 굽지 않았던 시선이 달라졌다. 철이 없거나 한량들이 즐기는 취미로만 여겨왔던 '키덜트 문화'는 이제 하나의 문화로 당당히 자리잡았다. 거대 시장이 된 키덜트 문화를 제대로 즐기고 맛보게 해줄 장난감에 대한 친절한 입

문서 '어른을 위한 첫 번째 장난감'이 나왔다.

어린 시절 일본에 거주하면서 게임에 푹 빠졌다는 저자 황재호는 그 시대로 게임 회사인 넥슨의 미국 법원에서 일하다가 귀국해 키덜트들을 위한 SNS '지빗'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책은 레고, 피규어, 프라모델, RC, 비디오게임까지, 이제 막 장난감 세계에 발을 들여놓으려는 사람들을 위해 각각의 장난감이 지닌 매력을 소개하고, 조립 방법부터 개조 방법, 보관 방법까지 장난감을 120% 즐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특별한 팁을 제시한다.

〈위즈덤스타일·1만3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산수옥면가

41년 모밀장인 이재성 대가

광주·전남 가맹점 대모집

▶ 최고의 마진
▶ 최소의 창업비용
▶ 최소의 인건비

“산수옥면가”
입니다!!

산수옥면가에서 제공하는 옥수와 소스는 41년 노하우를 통해 한국인의 입맛에 가장 알맞게 개발된 제품으로서 전문 주방장 없이 초보자도 쉽게 조리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 줄서서 먹는 대박집 운영 중입니다. 현재 각화점, 학동점 성업중!!

가맹점 문의 **산수옥면가 H. 010-2018-2005, T. 080-358-5000**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장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신제품

59

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신가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0-3600-9955

NAVER 주스(D) 대신프리모